

## 서울시 화장실문화 심포지움 개최

“고운 화장실로 선정된 곳을 수첩에 메모해 갖고 다니며 우선적으로 이용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합니다.”

-고건 서울시장의 인사말 중에서-

편집부

서울시 화장실문화 향상반(반장 백무경)은 2000년도 하반기 화장실문화 개선과 관련 유공자 및 우수화장실 표창을 겸하여 화장실문화 수준향상을 위한 심포지움을 실시하였다.

- 일시 : 2000년 12월 27일(수) 14:00~17:00
- 장소 : 서소문별관 후생관 4층강당
- 주제 : '화장실 무엇이 문제인가?'
- 주최 : 서울특별시
- 주관 : 화장실문화시민연대(심포지움)

시상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 화장실'을 중심으로 자치구에서 추천된 화장실을 대상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현장실사를 거쳐 선정하여 시상하였다.

시상식 후 고건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서울시의 화장실문화 개선사업을 소개하며 시민들에게 공중화장실을 깨끗하게 사용하는 문화의식 정착의 중요성을 당부 드리며 앞으로 수첩에 고운 화장실로 선정된 곳을 메모해 갖고 다니며 우선적으로 이용할 것을 약속하여 화장실 문화개선에 높은 관심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 제1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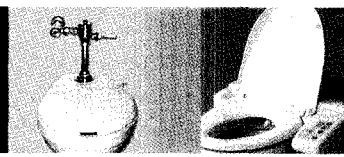
「화장실, 여성에 대한 매려 미흡하다.」

서울지역 남·여 화장실 변기 비율을 조사하여 발표한 화장실문화시민연대 표혜명 사무국장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여성은 2분 30초, 남성은 1분 30초 걸리는데도

### 화장실 무엇이 문제인가?

4:00 주최: 서울특별시 · 화





불구하고 조사를 실시한 재래시장, 초등학교, 지하철, 공연장을 막론하고 남·여 변기비율이 많으면 6:4, 적으면 7:3으로 나왔다고 발표하였다.

**제2발표**

「화장실, 너무 고가여서 호화스럽지 아니한가?」 부재인 「공중화장실의 건축비 구성의 특징」을 발표한 간·삼 종합건축사 사무소 조정호 부소장은 화장실의 건축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적정한 건축비에 대한 논의는 물리적이고, 문화적인 양면에서 공감대를 갖는 화장실 수준의 정착과 병행되어야 의미가 있다고 발표하였다.

**제3발표**

「시민들은 현재의 화장실 수준을 어느 정도 만족하는가?」

서울시 공중화장실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조사하여 발표한 (주)유니언조사연구소 박재훈 책임연구원은 조사결과 시민 절반이상 (63.4%)이 1년 전보다 공중화장실 시설수준이 개선되었지만 종합만족도는 45점 정도로 낮게 나타나 아직까지 시민이 기대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여 향후 만족도 제고를 위한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발표하였다.

**제4발표**

「우리는 어떻게 화장실분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는가?」 시설개선 및 문화수준 향상 사업에 본 협의회지 「美小空」의 도움이 많았다고 설명하면서 그동안의 개선과정을 설명하였다. 특히, 주유소 및 유흥업소 화장실의 개선과정에 이용자들이 시설물에 대한 파손 및 훼손 등으로 어려웠던 점을 설명하면서 시민들의 청결의식 전환 운동도 함께 추진해야 된다고 발표하였다.

**제5발표**

「한강 고수부지 화장실 개선 방안」 한강공원 이동식 화장실 개선을 발표한 한강관리사업소 차윤기 환경팀장은 한강공원에 설치된 600여기의 이동식 화장실 설치 실태를 설명하면서 한강공원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서민들이 손쉽게 이용하는 휴식공간 뿐만 아니라 서울을 찾는 외국인들은 누구나 감탄하는 서울의 명소이다. 이러한 한강공원에 최소한의 생리적인 욕구의 해결장소만을 제공하는 이동식 화장실을





개선해 나가지 않는다면 국내의 관광객들에게 나쁜 인상과 함께 더 이상 사랑을 받을 수 없어 조속히 수세식화장실로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제6발표

「외국인이 느낀 서울 화장실」

자신을 네덜란드에서 한국에 온지 3년 9개월된 Ron Katwig이며 요가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한국에 처음 와서 화장실 문이 열쇠로 잠겨 있는 것과 남자화장실에서 일을 보고있는데 아주머니가 긴 걸레를 가지고 들어와 깜짝 놀란 일 등 한국에서의 화장실 경험을 이야기하였다.

화장실이 별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청결한 화장실 때문에 한국에 또 오고 싶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화장실은 일부러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서 제일 우선해서 배려해야 하는 곳이라고 충고하였다.

제7발표

「자원봉사자의 경험담」

지난 13년째 환경보호감시 활동을 해오면서 화장실 운동에 남다른 관심을 갖게 되어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하였다는 시민연대 이강숙 노원구 회장은 그 동안 활동을 경험으로 각 구청에 화장실 개선과를 정식 개설해야 된다는 등 다섯가지 개선책을 서울시에 요청하였다.



제8발표

「공중화장실 설계를 위한 계획」

공중화장실이 갖추어야 할 조건 및 설계 시 유의사항 등을 발표한 서울산업대학교 건축공학과 정광섭 교수는 위생용품의 보안을 전제로 악취를 계속 수반하는 와변기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용자들의 청결한 이용문화 창출에 대한 제안과 철저한 유지관리 방법에 대한 연구 및 투자가 필요하다고 발표하였다.

제9발표

「2001년 서울시 화장실 수준 향상 사업의 추진방향」

화장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공급자(건물주), 관리자, 이용자가 함께 노력해야 하며 화장실 시책추진 성공의 관건은 첫째-시설 수준의 향상, 둘째-화장실 개방, 셋째-시민의식 수준의 향상 등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으며 2001년 시책의 추진방향은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활동에 중점을 두겠다는 화장실수준향상반 백무경 반장의 발표를 끝으로 화장실문화 수준 향상을 위한 심포지움에 막을 내렸다.